보현행원품

무비 스님 옮김/우리출판사

보현 보살의 10대 행원 삶의 질 향상시키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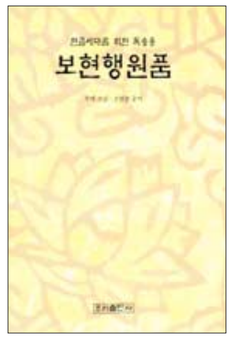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아름다운 경문으로 전하는 <보현행원품>은 중생의 생명을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발전이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삶이란 중생이라는 말에서부터 나타나듯이, 공동의 삶으로 서로의 공영이 보장되도록 살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생의 삶을 살아 모든 중생 전체가 조화롭게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와함께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대승십계를 설한 <범망경>을 같이 읽을 것을 권합니다.

선재동자의 구법여행 통해 수행의 구체적 방법·목표 제시



<보현행원품>은 궤빈국 삼장법사 반야가 왕명을 받고 번역한 경전이다. 본래 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으로 <보현행원품>은 반야삼장 역의 40화엄에 들어 있다.

주인공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에 의해 보리심을 발하여 53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데, 그 질문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느냐'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보살행을 묻기 위해 선재는 53선지식을 찾아간다.

보살행은 불교의 수행을 대승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보살행을 간단히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재 동자는 마지막으로 만난 보현보살로부터 보살행 완성의 법문을 듣는다.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설하여 그것으로 인해 부처님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선재 동자에게 말한다.

이른바 보현의 10종 광대 행원은 불교의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를 가장 쉽고도 심도있게 설해 놓은 법문이다.

과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방대한 <화엄경>에서 따로 분리시켰다. 그것의 한 품을 별도로 간행·유포하여 불자들로 하여금 수지독송케 했다. 이는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인 보살정신의 극치를 보현행원을 통해 보여주고, 이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이 보현행원품은 불교의 신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구체적이고도 쉽게 밝히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적 이론보다 실천적이고 극진한 신행의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엄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내려온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화엄종지의 선양차원에서 이 보현행원의 실천을 특별히 중요시했다.

선종에서는 이 참회문을 외우며, 매일 저녁 108배의 참회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기도 했다. 보현행원의 참뜻은 자비와 대비의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이 마음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행(行)을 실천할 때, 성숙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보현행원에 나타난 주된 정신이다.

또한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행을 설하고 있으며, <범망경>도 생명계의 무상규범 48가지가 보석처럼 제시돼 있다.

禪의 황금시대

오경웅 지음, 류시화 옮김/경서원

당 선종5가 선사들의 체험과 가르침 생생해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 책은 <The Golden Age of Zen>(1967)의 완역본으로 보리달마의 출현 이후 주로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선종 5가의 위대한 선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온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가르쳤던 삶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저자의 학문적 양심과 노장사상, 그리고 신학을 포괄한 선의 진수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역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삶의 도처에 항상하는 진리와 하나됨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 저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구지성 선불교 눈뜨게 한 책 50여 선승들 공안과 수행 소개

선(禪)에 관한 얘기들이 수없이 오가고 이런저런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일반 독자는 그 대부분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자 자신이 선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얼떨떨 하기만 할 뿐이다. <선의 황금시대>에 나오는 비논리적인 유우머의 홍수, 여러 가지 터무니 없는 행동들, 모순, 헛갈림, 횡설수설 등등. 이 모든 것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중국의 선은 남북조시대 남조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로부터 혜가, 승찬 등을 거쳐 육조혜능에 이른다. 혜능은 이책의 저자 오경웅이 공자, 노자등과 함께 중국 최고의 천재로 꼽는 인물이다. 혜능은 선의 핵심인 사상을 만들었다. 흔히 달마의 사구게로 알려진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게송은 실상 혜능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다. 혜능의 뒤를 이어 마조, 석두, 종념 등이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당 무종의 혹독한 불교탄압을 선종만이 극복할 수 있도록 터를 잡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백장이다.

그는 승려 지원자에게 주는 5가지 계와 승려(비구)가 지켜야할 5가지 계를 주었다. '때가 아닌 간식을 먹지 말 것', '몸에 향을 바르지 말 것'등인 백장청규이다. 혁명적 사상가인 그는 승려의 남세를 주장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一日不食)'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노동을 강조한 결과 시주에만 의존하던 불교의 다른 종파가 무종의 탄압으로 거의 붕괴되었음에도 선불교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외에도 당대 선불교의 꽃을 활짝 피워 선학의 황금시대를 맞게 한 선종오가의 운문, 동산, 위산, 임제, 법안을 비롯한 선승 50여 명의 공안을 비롯, 몽둥이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도를 깨치는 수행법 그리고 당대 선맥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만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오경웅이 67년에 영문으로 쓴 것을 번역한 것으로 서구 지성들이 읽고 선불교에 눈을 떴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80년대말 젊은 시인들이 선적 상상력으로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시를 쓰는 경향이 일어났을 때 이 책을 통해 선에 입문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도 선불교 문헌중 가장 뛰어난 목록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백두대간에서 깨달음으로…

산은 사람을 기른다

(윤제학 지음, 손재석 사진, 1만2천원)

이 책은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어루만지며 시종일관 명상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거기다가 사진은 풍광의 갈피마다에 숨어 있는 애틋한 존재의 노래들을 오롯이 포착해 내고 있다. <산은 사람을 기른다>의 출간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문학예술의 차원으로 고양된 백두대간 종주기를 갖게 된 것이다. -심산의 글에서

여름휴가를 맞이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땅의 등줄기를 우러러 보는 것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번 여름휴가의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쁨은 또 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차분해져야 한다.

삶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다면 금방 떨치고 일어설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들의 힘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줄 것이다. 거기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각이 새로워진다면 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는가!

도피안사 대표 송암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지혜

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

(법정 스님 지음, 7천5백원)

<참 좋은 이야기>와 <참 맑은 이야기>는 법정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야기 모음이다.

두 권의 책에는 그 동안 법정 스님이 살면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책에서 읽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물론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 편 들어 있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자비, 봉사와 희생, 맑은 가난과 베푸는 마음 등 훈훈한 메시지가 담겨있어 읽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그 감동으로 무더운 여름을 나는 것은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나눔의 정신으로 이웃과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권한다.

휴가 중 틈틈이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맑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동쪽나라 대표 김형균

'인생은 무엇인가' 해답담아

번뇌 업 고통

(정승석 지음, 8천5백원)

<번뇌 업 고통>은 인도 철학을 전공한 교수가 평소에 자신이 느낀 인생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것들을 솔직하고 평범한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가는 책이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발동하는 속마음 번뇌, 생사 윤회의 질긴 끈 업, 극복해야 할 삶의 진상 고통'에 관한 주제들을 인간으로서 느낀 감정과 인도 철학자로서 느낀 학문적 단상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밝히고 있어서 공감을 주고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우리는 흔히들 번뇌니 업이니 고통이니 하는 말을 가끔씩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제들이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실상을 안다고 인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

민족사 대표 윤창화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스님 지음, 조미라 옮김, 9천원)

내면의 평화 찾는길 안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 책은 좌선과 경행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부터, 명상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룰 것인가를 포함하여, 수행의 각 단계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최상의 명상 안내서요, 지침서다.

빠알리 경전에 실린 부처님의 말씀과 더불어 펼쳐지는 우빤디따 스님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순간 순간 마음의 탐색 행로가 열리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상 수행자가 되고, 명상 수행에 확신을 갖게 된다.

특히 스님 스스로 체험한 깨달음의 실제 여정과 심오한 앎의 이론적 모델 모두를 자세히 기술, 부처님께서 밟으신 대 자유의 길이 결코 꿈이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바로 이번 생'에 해탈이 가능하다는 유쾌한 확신을 갖게 하고, 조건지어진 마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면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고 있는 이 책은 초심자는 물론이고 연륜이 깊은 명상 수행자,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광출판사 대표 지홍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뭐지?

천수경과 기도법

(윤영해 지음, 7천5백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문구일 것이다. 이 말은 입으로 지은 죄, 즉 말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자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천수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은 대다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관음신앙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책이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설하는 경전이고, 관세음보살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일곱 자를 외우는 데서도 가피를 입는데 하물며 <천수경>을 독송, 외우는 데에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음신앙의 성격과 염불의 공덕, 예수재, 백중기도 등 기도법도 함께 실어 현실적인 오늘날의 기도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과 위대한 주문을 담고 있는 <천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오늘도 새로움으로 가득 찬 희망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불교시대사 대표 김병무

'수심결'에 담긴 지혜

마음 닦는 길

(강건기 엮음, 1만원)

무더위와 기약 없이 내리는 장맛비로 사람들은 짜증스런 여름을 맞고 있다. '세상일도 짜증나는데, 날씨마저…' 하면서 말이다. 이런 짜증내는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지눌 스님에 의하면 이런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 성내고 짜증내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버려야 될 것인데, 왜 부처의 마음과 같다고 했을까? 강건기 교수(전북대학교 철학과)가 지눌 스님의 <수심결>을 풀어 쓴 <마음 닦는 길>은 그 의문에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지눌 스님의 <수심결>은 말 그대로 마음 닦는 바른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날 자기상실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통과 상실에 빠져있는 그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자기상실의 병을 극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실존적 입장에서 인간회복의 길을 쉽고 자상히 설명하고 있다.

불일출판사 대표 윤정수

애들아! '법구경' 읽어봐!

어린이 법구경

(향봉 엮음, 8천원)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면 어른들에게 쉽고 간단한 문체가 안식과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단순해 보인다는 것이 단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봉 스님이 엮은 <어린이 법구경>은 어린이를 위한 불교 도서지만 책에 실린 부처님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읽고 깨우쳐야할 소중한 덕목들이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에서 벗어나 가끔은 단조로운 동화를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편안함과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에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법구경>은 간단명료하면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예로부터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애송되어 온 불교 교훈집이다. 부처님 말씀은 세상 때문은 성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등대가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우며 경험했던 일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에 여러 가지 색깔로 남게 된다. 따라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법구경에 담긴 가르침을 전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밀알 대표 이경용